

광주·전남 수출 호황 끝나나...하반기 주력 산업 '암울'



상반기 전국 100억 달러 적자 속 광주·전남 57억 흑자 가전, 코로나 특수 끝나고 경기둔화에 수요 감소 예상 석유화학 '공급과잉'·반도체 '수급난' 자동차 생산 차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호황'을 누렸던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올 상반기를 끝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전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광주·전남은 흑자를 기록했고, 전남은 전국 최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철강, 가전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업황이 암울하다는 점에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 25.1% 증가-무역 수지 57억 달러 기록-1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은 34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1% 증가한 것으로, 전국 수출 증가율 15.5%를 크게 웃돌았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8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2.4%나 증가한 253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데다, 총 수출액도 경북을 넘어서 전국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여기에 전국 무역수지가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57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전남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수입이 50%이상 늘었으나,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높은 정제마진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를 보였다. 철강도 엔데믹에 따른 수요 회복과 선탄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유럽을 중심으로 한 철강가격 강세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광주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반도체 품목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수출증대를 가져왔다. ◇수출 증가세 주춤-하반기 일부 주력 산업 '암울' =올 상반기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의 수출이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 10대 수출 품목 중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냉장고는 지난 4월 -9.4%, 5월 -16.2%, 6월 -36.1% 등 수출 증가를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 들어서 가전제품 수출은 일상회복과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광주·전남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은 그동안 석유 수요 회복으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급 안정으로 유가가 진정돼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러 금수조치와 중국 봉쇄 추이,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이 본격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 철강은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세계 철강 수요가 정체되고,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물량과 단가의 동반 부진으로 하반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친환경차 수출비중이 늘면서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심화 등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이 점차 해소되고 국산 친환경차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해외수요가 높은 전기차 생산이 많지 않은 데다, 고유가 영향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출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불만요소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과 외출 증가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석유제품의 경우 원유 가격 안정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도 우려된다"며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와 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악화되면 전반적인 지역의 수출지표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고객서비스 우수 직원 시상 NH농협은행 전남본부와 광주본부는 20일 동협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1 연도맙시스타'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수경 부행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응대, 마케팅 능력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남 9명, 광주 4명의 연도맙시스타에게 시상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

폭염·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는 이달까지 두 달 동안 폭염·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광역 또는 공업용수도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은 기상변화에 따른 취수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된다.

영·섬 유역 내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물 관리부서인 동화권지사, 전남북부권지사, 전남중부권지사, 전남서남권지사, 여수권지사와 함께 공동 진행한다.

안전점검은 집중호우 취약구역 관리,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적정성, 여름철 폭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영·섬 유역은 장마 기간 강우로 인해 관로 매설구간의 지반이 약해져 있어 향후 집중호우 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영·섬수도지원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는 여름철 주기적인 추가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예정이다.

기남연 영·섬수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겠다"며 "물 전문가기업이라는 무게를 책임감을 느끼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운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0일 목표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납세자 불편 겪지 않게 최선 다해달라"

운영석 광주국세청장, 목포세무서 방문

운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7월1일-25일)을 맞아 20일 목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운 청장은 이날 신고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 등을 돌아보면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 또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령자와 장애인 등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해달라"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승인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문제 조정 전문가 양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9일까지 퍼실리테이터 수강생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9일까지 전남지역 리빙랩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연구실을 뜻하며 '퍼실리테이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도출과 중재, 조정 및 최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전남 거주주민과 전남 활동 프리랜서, 전남 소재 기업·기관 종사자, 전남 소재 대학의 학생 등 전남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나주 혁신도시 '전남글로벌게임센터'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총 58시간 진행된다. 8월 24일 발족식 이후 매주 화요일 8차례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회차별로 소정의 교통비와 중식 등이 제공된다. 전문가 활동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설계 카드와 도구 모음 가방도 주어진다. 교육은 퍼실리테이션 교육 전문가인 ㈜더조

아진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참가자는 ▲퍼실리테이션 입문·심화 과정 ▲현장실전 훈련 과정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소양 과정 등을 배우게 된다.

수료생에게는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인증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 또 진흥원 위촉 퍼실리테이터와 더조아진 파트너 활동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자정까지 이뤄지며, 25명을 선발한다.

진흥원과 더조아진은 지역 문제를 발굴·정의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구반'도 동시에 모집한다.

나주·목포·순천 권역별로 20명씩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2-5명)로 신청할 수 있다. 수료자는 시민연구반으로 위촉되며 연구활동 키트·ID카드·연구 활동비 등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무료개방

기숙사 리오픈 기념 29~3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기숙사 리오픈을 기념해 휴가철인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오랜만입니다' 무료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 호남연수원은 공공연수원으로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기숙사 시설을 광주시 제2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고, 광주시로부터 사회화까지 실현 모범 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5월부터 광주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으로 시설보수공사와 매트리스 등 비품 전면교체로 7월 말 다시 문을 열게 된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에 맞춰 중소기업 임직원은 물론, 타지역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숙소를 무료개방하면서 보다 쾌적해진 호남연수원을 알리고 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중진공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식

관광 블로그 등에 게시해 방문객을 100명까지 모집했고, 이들에게는 웰컴패키지, 조식제공, 주변 관광 안내, 스마트공장배우터 체험(VR체험), 심야영화 상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남연수원은 연간 3000명의 연수생이 이용하고,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경영품질 분야 85개의 정과과정과 다양한 정책연수, 기업현장연수를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6.85(+15.88)
▲ 코스닥	790.72(+8.39)
▲ 금리(국고채 3년)	3.296(+0.104)
↓ 환율(USD)	1312.90(-0.50)